

SPRING 2019 봄호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學士秀入
 仁く由ら
 尤能く
 手能んやし
 只今し世に
 唐ニハク
 今ニハク
 入ト計ニ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CONTENTS

04 권두칼럼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400년 조선통신사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성신교린을 이어가자

06 성신교린
 히타카츠 나오키 쓰시마시 시장
 국경의 섬
 쓰시마와 조선통신사

08 기획특집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조선통신사,
 일본으로 향하다

14 조선통신사 24時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2019 조선통신사 축제
 "과거를 통해 미래로"

17 조선통신사 갤러리
 이정은 학예연구실장
 조선통신사, 일본에서 그림으로 기록되다
 문미순 한지인형작가



담배를 좋아하는 조선통신사를 위해 직접 일본 측에서 준비한 신넨, 핫토리 산 담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다.

첫 등장하는 하단인물이 왼손에는 긴 담뱃대를 들고 오른손에는 심지에 불을 붙여 연기가 막 피어오른 불씨를 든 모습이 흥미롭다.

그림 상단의 글에서 '押日本人'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짐을 넣은 장방형의 큰 상자를 옮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왔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의 짐이 매우 많았고, 짐을 옮기는데 30명 정도의 아시가루(보병)가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엔쿄5년 조선통신사등성행렬도(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図)

설 명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1747~1748년 조선통신사가 도쿠가와 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에도성으로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학사가 등장하는데, 학사란 일본에서 제술관을 부르던 호칭이었다. 조선에서는 문장력이 뛰어난 학사를 조선통신사 행렬에 1682년부터 파견하였다.

사 행 년 1747년
제 작 자 작자미상
제작연대 1748년
소 장 처 시모노세키시립역사박물관
사진제공 시모노세키시립역사박물관

엔쿄5년 조선통신사등성행렬도(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図)

설 명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사 행 년 1747년
제 작 자 작자미상
제작연대 1748년
소 장 처 시모노세키시립역사박물관
사진제공 시모노세키시립역사박물관



발 행 일 2019. 4. 30 **발 행 인** 강동수
발 행 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 집 위 원 한태문, 백태현, 이주영
편 집 기 획 문화유산팀 Tel 051.744.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 제작 코리아기획 Tel 051.204.7879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2019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400년 조선통신사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성신교린을 이어가자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는 이웃이라는 숙명적 입지 속에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교류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간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대한해협 도시간 교류 등 한일 지방간 교류는 중단없이 계속된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일한 권역 국가간에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성신교린(誠信交隣)정신으로 화합과 협력의 기회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교훈이며, 우리 조상들이 거쳐간 조선통신사의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도 또한 그러합니다.

400여년 전인 1592년 조선과 일본은 7년간의 전쟁을 겪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선린우호와 평화정착을 위해 조선통신사를 일본으로 보내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산포를 출발한 500여명의 조선통신사 일행은 해로와 육로를 거쳐 280여일에 달하는 왕복여정을 12차례나 오갔습니다.

그 결과 조선통신사 이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200년 동안 한일간에는 전쟁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 또한 절정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부산은 당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항해를 시작한 출발지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일행이 조선왕실의 국서를 들고 를 거쳐 일본 막부에 도착하기까지 거쳐 간 일본 도시들은 400여년이 지난 지금 조선통신사연지(緣地)도시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를 결성하여 19개 자치단체와 70개의 민간단체, 104명의 개인회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이들 도시에서는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도시간 상호방문, 거리공연, 행렬재현, 예술단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한일 주민간에 끈끈한 유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부산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앞장서 조선통신사 “해유록”을 포함한 111건 333점의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우리 부산에서는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고 여름, 가을에는 조선통신사들이 거쳐 간 일본 연지도시에서 양국 도시간 문화교류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거를 통해 미래로” 라는 주제로 부산축제가 열리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다리던 통신사船이 복원되어 우리 부산에서 출항 행사를 하게 됩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서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것처럼 통신사船도 한국과 일본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과 감정이 고조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400년전 조선통신사가 오가던 성신교린의 정신을 기억하여 과거를 통해 미래를 직시하고 더욱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은 조선통신사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한일간 교류에 앞장서면서 무엇보다 한일 양국민의 우호친선을 위한 노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연지도시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간 협력,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교류, 문화교류,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0세기 들어 2번의 전쟁을 치른 유럽에서 화해와 통합으로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주민간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민간 유대와 지자체간 교류국가는 국가갈등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해마다 개최하는 조선통신사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선린교류라는 정신을 본받아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히타카즈 나오키 쓰시마시 시장

국경의 섬 쓰시마와 조선통신사

쓰시마는 조선과 일본의 국교에 관한 교섭,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온 국경에 위치한 외딴 섬이다. 실제로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던 당시는 물론, 현대에 있어서도 쓰시마와 조선통신사는 깊은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록된 17세기~18세기의 조선통신사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일본과 조선의 국교 단절의 계기가 된 임진왜란 발발에 쓰시마번은 침략을 하지않도록 태합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입장이 180도 바뀌어 조선과의 교류로 조선 국내의 지리에 밝았던 쓰시마번이 선도역을 맡을 것을 명령받게 된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로는 국교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했으니 일본 막부와 조선 사이에서 농락당하는 쓰시마의 모습이 거기에는 있었다.

조선통신사는 우호의 사절로 쓰시마번이 조선에 대해 파견을 요청한 사절단이다.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나라를 지켜가며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쓰시마번은 국서를 위조하게 되는 등 상당한 고초를 강요받게 된다. 그것이 훗날 탄로가 나서 대사건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기도 하거나 나는 역사 전문가도 아닌 셈이므로 생략하겠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지금껏 쓰시마에서 살아온 나임에도 불구하고 근년이 될 때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내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일본 국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80년, 쓰시마에서 조선통신사행렬의 재현이 이뤄졌다. 이것은 신기수(辛基秀) 선생님이라고 하는 학자와 쓰시마의 의류품점 경영자인 쇼야 코사부로 씨의 만남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 신기수선생님은 연구를 위해 쓰시마를 여러 번 찾으시던 중, 쓰시마를 위해 어떻게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싶다는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던 쇼야 씨를 만나게 되고,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라는 영상을 쇼야 씨에게 보여줬다. 쇼야 씨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이거다!」라고 감탄했고, 4월에 이 영상을 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월에 있었던 '이즈하라 항 축제'에서 행렬재현 행진을 실시했다. 그야말로 노도와도 같은 속도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영상을 보자마자 곧장 제법 많은 수량의 의상을 사들였고, 현재는 정사와 부사가 타고 있는 대차를 인근 지역의 자전거·오토바이 수리점에 의뢰하여 급조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기모노 가게에서 종업원을 차출한 것이다. 쇼야 씨의 강력한 행동력으로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이 실시되었고, 조선통신사행렬 진흥회 라고 하는 단체를 낳기에 이르고, 현재까지 거의 40년에 역사를 지닌 쓰시마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행렬의 재현이 매몰된 역사가 되어 있었던 조선통신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쓰시마의 땅에서 부활한 조선통신사의 전국 각지로의 사행이 시작된다.



1995년에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이하 연지연으로 호칭)가 발족하고, 조선통신사 유래의 지역을 서로 잇게 되었다. 발족을 위한 수년간을 포함하여 현재도 연지연 이사장을 역임하는 마츠바라 잇세이 씨를 비롯한 쓰시마 시민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조선통신사와 깊은 유래가 있음에도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루트인 것조차 모르는 지역이 있는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교섭하여 단체로의 가입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이 단체의 주된 활동으로 소속하는 회원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연지연 전국 교류대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비롯한 일한 교류의 성격이 강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것이 전국각지에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것도 연지연 이사장 마츠바라 가즈유키(松原一征) 씨와 쓰시마시 국제자문 대사를 맡아주고 계시는 강남주(姜南周)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사람과 사람의 유대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한국 부산에 있어서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비롯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이벤트가 개최하게 되어, 쓰시마에서도 무사단이 참가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되어 현재 매년 5월에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조선통신사 축제에 이어지고 있다.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록하는 것이 공통의 큰 목표가 되어,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 소원은 2017년 10월에 달성하게 된다.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사절단인 조선통신사가 세계에서 인정 받은 대단히 큰 성과이며, 조선통신사의 지명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신청자인 연지연과 부산문화재단의 여러분이 기울인 크나큰 노력은 물론, 조선통신사에 관련해 오신 모든 분의 활동 덕분에 생각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일, 혹은 이들이 유대관계가 가지게 된 뿌리에는 쓰시마 시민이 시작한 이벤트(쓰시마 이즈하라 항 축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가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나는 시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낸 시민 여러분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조선통신사는 일한우호를 상징하는 대명사로서 역할이 주어져 왔으며, 앞으로 점점 그 가치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교과서에도 게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쓰시마시에 있어서도 조선통신사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기록유산신청서에 기재될 「항구적인 평화공존관계와 이문화존중을 지향하는 인류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조선통신사를 세상에서 잊혀지는 일 없도록 후세에 계승해 나가는 것은 책임과 의무이며,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나갔으면 한다.

여러분, 성신교린의 정신으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조선통신사, 일본으로 향하다

통신사 행렬, 동래로 들어서다

용당(龍塘)에서 하루를 묵은 사행(사신행차)은 아침 일찍 동래로 향했다. 종사관은 일행들보다 더 빨리 길을 나섰다. 검문소인 십휴정기찰(十休亭讞察)에서 위반물품은 없는지 수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은 '조선 속의 일본인 거주 마을'인 왜관(倭館)이 있어서 일본과의 사무역이나 내통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양산에서 동래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십휴정기찰이, 구포에서 김해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구법곡기찰(仇法谷讞察)이 있었다. 수검을 끝낸 사행은 동래부사가 기다리고 있던 오리정(五里亭)에서 공복(公服)으로 갈아입었다. 세 사신은 관복에 말을 타고 나머지는 모두 흑단령(黑團領)을 갖춰 입고 동래부사의 뒤를 따라 동래객관으로 향했다. 악공들의 음악 연주에 맞춰 '형명기(形名旗)'·'순시(巡視)'·'영(令)'·'청도(淸道)'등의 깃발이 하늘을 가렸다. 짐을 실은 말까지 합쳐 60리에 이를 정도로 장엄한 행렬이었다.



▲ 19세기 '광여도(廣輿圖)'에 그려진 십휴정기찰(규장각 소장)

동래읍성의 남문인 주조문(朱鳥門)에 이른 사행은 삼혈포를 쏘아 도착을 알리고 객관의 누각인 식파루를 지나 객관의 대청 북쪽에 국서를 모셨다. 세 사신이 동쪽 벽에 늘어선 사행원들은 직분에 따라 계단의 동쪽에 늘어섰다. 동래부사를 비롯한 지방관과 수령들이 뜰에서 국서를 향해 네 번 절한 뒤 동래부사가 계단을 올라 정사에게 임금의 안부를 묻는 문상례(問上禮)를 행했다. 이후 동래부사가 다시 내려가 3번 향을 피운 후 4번 절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세 사신은 동헌(東軒)·서헌(西軒)·장관청(將官廳)에 각각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세 사신은 낮에는 군관들을 관덕당(觀德堂)에 모아 활쏘기를 시켰고, 밤에는 기생과 악공들을 정원루(淸遠樓)에 모아 풍류를 즐겼다. 그 사이 수역당상과 상판사는 실무 처리와 상견례를 겸해 왜관을 다녀왔고, 다른 사행원들은 임란 때 순절한 93인의 위패를 모신 총렬사를 찾아 복수 대신 국익을 위해 사행을 떠나는 자신의 처지에 부끄러운 눈물을 흘렸다.



◀ 임진왜란 때 신화한 선열의 위패를 모신 총렬사

부산진에 이르러 타고갈 배를 살피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풍악을 울리며 동래 객관을 나선 사행은 정오쯤 최종 목적지인 부산진성에 도착했다. 지대관인 부산진첨사와 장수들은 갑옷과 투구 등을 갖춰 입고, 각 고을 수령들은 군복 차림에 칼을 찬 채 객관의 중문에서 사행을 맞았다. 객관 북쪽 벽에 국서를 봉안한 뒤 세 사신이 동쪽 벽에 늘어선 가운데 첨사(僉使) 이하 모든 사람들이 동래와 같은 예절을 마친 후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신묘통신사(1711)의 경우 정사가 객관의 동쪽 빈일헌(賓日軒)에, 부사는 서쪽 정해헌(靜海軒)에, 종사관은 관덕정(觀德亭), 그리고 나머지 일행은 민가에 머물렀다.



▲ 이성린의 '사로승구도'에 그려진 부산진성과 영가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복원된 조선통신사의 방 위에 내걸린 '여산재(如山齋)'편액

세 사신은 곧장 영가대 앞 선착장으로 향했다. 영가대는 1614년 순찰사 권반(權盼)이 전선(戰船)을 감추기 위해 선착장을 만들 때 파 올린 흙이 언덕을 이루자 그 위에 세운 8칸 누각이다. 선착장에는 통신사가 타는 기선(騎船) 3척과 짐을 싣는 복선(卜船) 3척 등 총 6척이 정박해 있었다. 배는 부산의 경상좌수영과 통영의 경상우수영이 나누어 제작했다. 처음에 중선(中船) 1척과 소선(小船) 1척을 제작하던 경상좌수영은 신묘통신사(1711)부터 소선 2척만 제작했다.

배는 길이 40척에 넓이가 15척으로 전선(戰船)에 비해 조금 크고 견고했다. 높이가 10여 장(丈)이나 되는 두 개의 돛이 뱃머리와 허리에 각각 세워지고, 좌우에 각각 7~8개의 노가 갖춰졌다. 배 위에는 사행원이 머무는 10여 칸의 방이 마련되고, 각 방 입구에는 해당 사행원이 직접 작명한 편액이 걸렸다. 최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재현한 통신사선에 내걸린 '여산재(如山齋)'라는 편액은 정묘통신사(1747) 정사 홍계희의 방에 걸린 것이다. 사행의 목적이 '국서의 전달'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곁에 국서를 모신 '호서각(護書閣)'의 편액까지 걸었더라면 제대로 된 재현이었을 것이다. 방 위에는 배의 키를 움직이는 망대인 타루(柁樓)가, 뱃머리에는 명령 전달을 위한 큰 북이 놓였고, 배 꼬리의 구멍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방 아래에는 예단과 양식, 짐을 물론 밥을 짓고 상을 차릴 수 있는 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 해신제



▲ 800년 된 배롱나무가 호위하는 정묘(鄭墓)



▲ 통신사가 노닐었던 태종대의 신선바위

해신제로 바다 사행길의 두려움을 떨쳐내다

국가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게 각별한 정성으로 만든 배를 살핀 사행은 이내 해신제 준비에 들어갔다. 육로여행에 익숙한 사행원에게 바다 여행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게다가 동력선도 아니고 오로지 순풍과 격군들이 짓는 노에만 의존해야 했기에 그 공포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계미통신사(1763) 때 정사로 뽑힌 정상순이 어머니의 연로함을 핑계로 왕명을 거부하자 왕이 그에게 ‘김해’유배의 벌을 내렸을까? 이처럼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해신제는 바닷길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행원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행사였다.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은 동래부에서 말고 축문 작성과 제사날짜 등 제사 전반의 준비와 진행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제술관이 책임을 맡았다. 약 5일 전 제사날짜가 정해지면 공복(公服)을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목욕재계는 물론 술·고기·파·마늘 등을 먹지 않고 문병과 문상이 금지되었다. 하루 전날에는 사청(射廳)에 모여 제물을 검사해서 봉하고 제단을 꾸민 후 직분에 따라 수 차례 예행연습을 했다.

당일 새벽 1시쯤에는 사행원이 영가대에 설치된 제단 앞에 모여 최대한 엄숙하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상을 치운 뒤 대축(大祝)을 맡아 축문을 읽던 제술관이 위패와 축문을 불사르고, 향로를 받들던 재랑(齋郎)이 배를 타고 두어 리 남짓 나가 희생과 제사음식을 물에 띄우고 돌아오면 제사는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해신제를 지낸 사행은 아침밥을 먹은 후 배를 타고 7~8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예비항해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면 왜관에서 파견된 60여 명의 왜인들이 배의 치수를 재고 점검하는 ‘점선(點船)’행사가 어김없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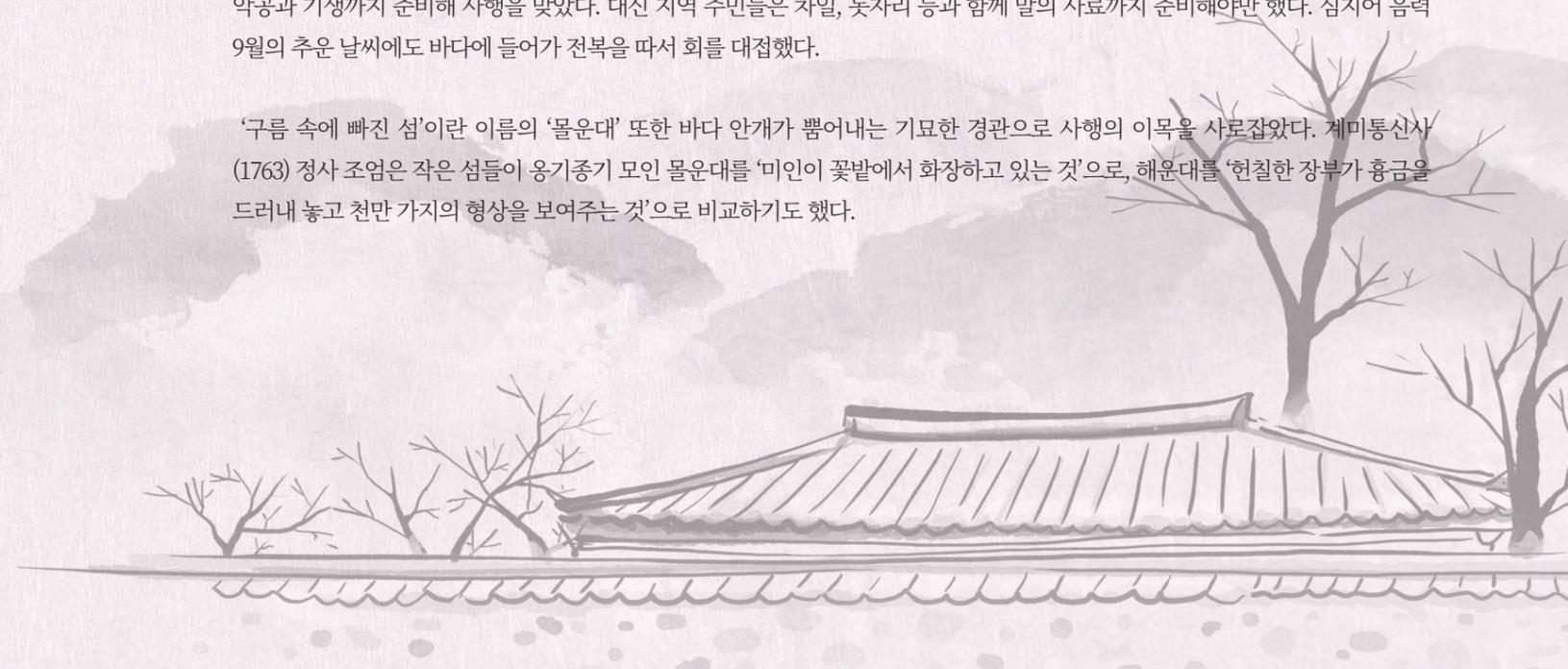


부산의 명소를 유람하다

사행은 부산에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51일을 머물렀다. 평균 약 한 달을 머무는 동안 역관과 같은 실무자는 바빴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사신을 비롯한 문사들은 부산을 관광할 기회가 많았다. 먼저 객사 뒷산인 증산성(甍山城)에 올랐다. 왼쪽에는 명당으로 손꼽히는 동래 정씨 2세조 정문도의 무덤인 ‘정묘(鄭墓)’가, 오른쪽에는 바다 건너 ‘절영도’가 아슬푸레하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사행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정묘와 절영도로 향했다. 정묘를 찾은 임술통신사(1682) 역관 김지남은 그 형세를 “용이 숨어 누워 있고 범이 쭈그리고 있는 듯하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절영도에 도착한 사행원들은 범어사 승려들이 맨 가마를 타고 곧장 10리 떨어진 태종대로 향해 신선들이 놀았다는 신선바위 위에서 그야말로 신선놀음을 즐겼다.

특히 사행이 자주 찾은 곳은 영가대와 함께 부산의 3대 절경으로 손꼽히는 ‘해운대’와 ‘물운대’였다. 해운대는 최치원이 동백섬의 바위에 ‘해운대’라는 글씨를 새긴 곳으로, 사행원에겐 최치원의 발자취를 되밟는 수학여행 코스였다. 게다가 좌수사는 장막을 치고 악공과 기생까지 준비해 사행을 맞았다. 대신 지역 주민들은 차일, 돛자리 등과 함께 말의 사료까지 준비해야만 했다. 심지어 음력 9월의 추운 날씨에도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따서 회를 대접했다.

‘구름 속에 빠진 섬’이란 이름의 ‘물운대’ 또한 바다 안개가 뿜어내는 기묘한 경관으로 사행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계미통신사(1763) 정사 조엄은 작은 섬들이 웅기종기 모인 물운대를 ‘미인이 꽃밭에서 화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운대를 ‘흰질한 장부가 홍금을 드러내 놓고 천만 가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하기도 했다.





▲바위 위에 새겨진 최치원의 글씨

풍성한 전별연에 사행의 근심을 잊다

나라에서는 먼 길을 떠나는 사행에게 공식적으로 전별연을 베풀어주었다. 전별연은 원래 충주·안동·경주·부산에서 열렸다. 하지만 민폐를 고려해 1655년 이후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전별연은 경상도 관찰사가 베푸는 영천과 경상좌수사가 베푸는 부산 두 곳에서 개최되었다. 부산객사에서 열린 전별연의 비용은 경상좌수영에서 대고 경상우수영이 보조했다. 부산의 전별연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잔치답게 모든 사행원이 참석했는데, 비좁은 공간은 빈일헌의 대청마루 앞에 좌판을 잇대어 임시로 자리를 마련하여 해결했다.

전별연의 잔치상은 붉고 흰 꽃가지가 꽃히고 그 아래에는 화려한 술잔과 붉은 촛불이 아롱거렸다. 상마다 음식 그릇이 80개가 되는 '화상대찬(花床大饌)'에다 9차례 술을 마시고 7차례 음식을 올리는 큰 잔치였다. 게다가 동래·경주·밀양·울산의 기생들이 '황창무'와 '처용무'를 추는 등 기악이 밤늦도록 이어져 구경꾼이 성안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 <일동장유가>를 지은 김인겸이 서왕모가 한무제에게 3천년 마다 열매가 열리는 복숭아를 바칠 때의 잔치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행원들은 저마다 머리에 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고 가득 놓인 음식을 먹으며 잠시나마 앞으로 펼쳐질 사행에 대한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드디어 일본으로 향하다

해신제와 전별연을 치르고 부산의 관광명소까지 유람한 사행은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일본으로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 사이 관백에게 선물할 말과 매를 실은 배는 사행보다 며칠 일찍 출발했다. 사행의 출발 날짜는 관상감에서 점을 쳐 길일로 가려 뽑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제때 출발한 경우는 드물었다. 심지어 몇 번이나 출발했다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발이 결정되면 사행은 6척의 배에 예단과 잡물을 나누어 싣고, 종사관의 마지막 점검을 받았다. 그 사이 조정에 '발행 장계'를 올린 사신은 와룡관(臥龍冠)과 학장의(鶴警衣)를 갖추어 입은 뒤 국서를 받들고 배에 올랐다.

이윽고 뱃길 안내를 왜관에서 파견한 쓰시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면, 사행은 북과 피리를 일제히 울리고 닳을 울리라는 신호로 포를 쏘아 출발을 알렸다. 곧이어 쓰시마의 소형 쾌속선인 '비선(飛船)' 두 척이 사행이 탄 배의 닳줄을 끌어 이끄는 순간, 통신사가 탄 배는 돛을 펼치면서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갔다. 부산침사를 비롯하여 개운포와 두모포의 두 만호는 절영도 밖에서까지 배를 타고 나와 무사항해를 빌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2019 조선통신사 축제

“과거를 통해 미래로”



설혁수의 핵심요약으로
알아보는 조선통신사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 용두산 공원 및 광복로, 부산항만공사 행사장(구 연안 여객터미널) 등에서 조선통신사 축제를 펼친다. 2019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에는 3사(정사, 부사, 종사관), 군관, 역관, 소동, 격군 등 과거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충실히 재현할 예정이다 더 눈여겨 볼 만하다.

조선통신사 재현선의 승선체험 역시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조선통신사 행렬과 연계한 출항식, 선상박물관 운영 등 일반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리라 기대한다. 단 순히 배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승선하여 부산항대교까지 1시간 정도 운항을 할 예정이라 조선통신사 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올해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은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용두산 공원에서 출발하여 부산항만공사 터미널까지 확대한다. 특히 동래부사가 3사를 맞이하는 의식인 접영식을 행렬에서 볼 수 있으며, 어린이 조선통신사 행렬과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참여로 시민들이 행렬을 주도하는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진행할 ‘유마도’공연, 일본의 대표적인 거리예술인 다이도우게이(大道芸), 부산을 대표하는 거리예술가들의 공연, 조선통신사 특별기획전시까지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2019. 5. 1. 수 ~ 5. 7. 화

01 특별 기획 전시 - 문텐로드 전[展] 5. 1. (수) ~ 5. 7. (화)

아스티호텔 3층 갤러리

내용 조선통신사 관련 사진
(사진작가 문진우)
조선통신사 관련 한지인형
(소향회 대표 문미순)



2019. 5. 3. 금

02 학술행사 - 조선통신사 국제 학술심포지엄 5. 3. (금) 13:00 ~ 18:00

아스티호텔 24층

주제 2019 조선통신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내용 기조강연 및 발표, 토론, 학술지 발간
공동주관 조선통신사학회



03 조선통신사의 밤 I 5. 3. (금) 19:30 ~ 21:00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주제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무용단
공연 ‘유마도’
내용 국립부산국악원과 연계운영
기획공연 ‘유마도’ 관람 및 리셉션 진행
주관 국립부산국악원



2019. 5. 4. 토

04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5. 4. (토) 14:00 ~ 16:00

용두산 - 광복로 -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내용 한일 조선통신사 관계자 및
행사 참가예술단의 교류 만찬 행사
참가규모 국내외 내빈, 조선통신사 연지연락
협의회 관계자, 행사 참가 일본
예술단 등 300여명



05 전별연(만찬), 한·일 네트워크 파티 5. 4. (토) 19:00 ~ 21:00

아스티 호텔 21, 22층 연회장

내용 한일 조선통신사 관계자 및
행사 참가 예술단의 교류 만찬 행사
참가규모 국내외 내빈, 조선통신사 연지연락
협의회 관계자, 행사 참가 일본
예술단 등 300여명



2019. 5. 4. 토

06 조선통신사의 밤 II

5. 4. (토) 18:30 ~ 21:00

용두산 공원 광장 특별무대

내용 한일 예술문화교류공연

▶한일 예술단 공연

- 한국: CHILL'N STREET(Street Dance) 세레모니(연극), 하나로 프로젝트
- 일본: 히로시마 모미지렌, 슈쿠바오도리 외 2팀(총 4팀)



07 한·일 거리 공연

5. 4. (토) 11:00 ~ 18:00 / 5. 5. (일) 10:00 ~ 18:00

용두산 공원, 광복로 일원

내용 한·일 거리 예술가 공연, 퍼레이드 참가 단체 공연

출연진

- ▶한국: 서덕구합합댄스스쿨, G.A.D 힙합 스텐트팀, 진주검무 외 5팀(총 8팀)
- ▶일본: 시모노세키 바칸키헤이타이, 히로시마 모미지렌, 시즈오카 조우나이이치린샤클럽 외 7팀(총 10팀)



08 특별 기획행사 - 조선통신사선 승선체험

5. 4. (토) ~ 5. 6. (월) 10:00 ~ 16:00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대상 조선통신사 축제 참가 일반 시민 (현장 및 예약 접수자)

내용 新조선통신사 선(정사 기선) 승선체험

- ▶조선통신사 강의
- ▶승선체험(1일 3회, 회당 승선인원 50명)



09 광장행사 - 조선통신사 광장 및 관광물산전

5. 4. (토) ~ 5. 6. (월)

용두산 공원

내용 용두산 공원 광장 행사

- ▶관광물산전 - 부스운영 판매 및 안내
 - 한국: 영도 조내기빵, 송도 고등어빵, 남광식품(김, 아몬드스낵 등 건어물)
 - 일본: 나가사키 카스테라, 쓰시마 카스마키, 시모카마가리 톳소금
- ▶체험부스 및 생활문화동아리부스 운영



2019. 5. 5. 일

10 新조선통신사 필담창화 '그리고 화합하다'

5. 5. (일) 11:00 ~ 15:00

용두산 공원 광장

내용 부산소재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조선통신사 테마 미술실기 대회

부상 시장상, 교육감상, 대표이사상, 관련 단체장상 등

참가규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0명 이내



新조선통신사 서포터즈

신조선통신사 양성 아카데미

-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
- ▶국내외 행사참여 후 SNS포스팅
- ▶조선통신사 유튜브 채널 활성화



조선통신사 갤러리
조선통신사, 일본에서 그림으로 기록되다

조선통신사, 일본에서 그림으로 기록되다



이정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그림1. 《숙종37년 조선통신사행렬도》, 《등성행렬도》 중 정사, 국사편찬위원회, 1711.

조선통신사행렬도(朝鮮通信使行列圖)는 일본에 파견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그린 기록화다. 조선통신사행렬도는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제작했는데, 1711년 일본에서 그린 그림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종가기록인 『정덕신사기옥(正德信使記錄)』을 참조한 다시로 카즈이田代和生 교수와 이를 연구한 홍선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막부(幕府)로부터 행렬도 제작의 명을 받은 쓰시마 번에 의해서 1711년 8월 21일부터 141일 동안 막부(幕府)와 노중(老中)의 현상용, 대마종가(大馬宗家)의 보관용 등의 행렬도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교토 고리미술관,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에 나뉘어 전하고 있고 양국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특히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한 행렬도는 당시 제작된 그림 가운데 완전한 세트에 남아 있는 유일본인 만큼 중요한 문화재이다. 이 그림은 현재 《숙종37년 조선통신사행렬도(肅宗三十七年朝鮮通信使行列圖)》로 지칭되고 있고 이는 1711년 신묘통신사의 행렬도를 직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신묘통신사는 에도 막부의 6대 쇼군(將軍) 이에노부(家宣)의 취임 축하와 조선국왕의 국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방일한 사행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외교 관례를 바꾸려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사행이었다. 정사 조태억(趙泰億), 부사 임수간(任守幹), 종사관 이방언(李邦彦) 삼사(三使)를 비롯하여, 제술관 이현(李璣), 서기 홍순연(洪舜衍)·엄한중(嚴漢重)·남성중(南聖重), 왜학상통사(倭學上通事) 현덕윤(玄德潤), 역관 최상집(崔尙嶠)·이석린(李碩麟)·이송년(李松年)·김시남(金始男), 사자관 이수장(李壽長)·이이방(李爾芳), 화원 박동보(朴東普), 양의 기두문(奇斗文), 의원 현만규(玄萬奎)·이위(李渭) 등 500여명이 파견되었다.



그림2. 《등성행렬도》 서기 홍순연·엄한중·남성중, 국사편찬위원회, 1711.

1711년 5월 한양을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 7월 쓰시마에서 본격적으로 사행이 시작되었다. 쓰시마에서 통신사 일행을 호위하는 일본의 무사들과 각 번에서 동원된 인부 등 1500여명이 참여하여 장대한 광경을 이룬 행렬이었다.

《속종37년 조선통신사행렬도》



그림3. <도중행렬도>
아메노모리 호슈,
국사편찬위원회, 1711.



그림4. <등성행렬도>
아메노모리 호슈,
국사편찬위원회, 1711.

신묘통신사를 그린 행렬도가 지니는 미술사적 의의는 남아전하는 조선통신사행렬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상세한 통신사의 행렬을 제작한 것에 돌 수 있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점을 하자면, 첫째는 1682년 사행부터 파견된 제술관과 양의의 모습이며, 둘째는 1711년 신묘통신사가 4명의 역관과 3명의 서기로 구성된 것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된다. 셋째는 1711년 쓰시마의 조선통신사 업무를 담당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 1711년 신묘통신사는 방대한 행렬도를 탄생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신(誠信)의 뜻을 함께 나눴던 현덕윤과 호슈가 진실로 교류했던 사행이기도 하다.



문미순 소향회 대표
한지인형작가

마상재



필담창화